

피란시절 남구의
기억과 증언
③ 우암·감만동



이 춘 애
1928년 생
함경북도 성진 출생

나는 만주에서 초등학교에 다녔고 태평양전쟁이 끝나 트렁크만 들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우리 시댁은 항구가 있는 성진(지금의 김책시)에서 비단가게를 운영했는데 제법 알아주던 부자였다. 남편은 바이올린 연주자였다. 결혼식 날 악단을 불러 연주를 했는데 시아버지와 남편 부자간에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 해방 후에 집안이 공산당원들로부터 꾸대접을 많이 받아 그대로 놀러앉아 있을 수 없어 피란길에 올랐다. 시부모와 함께 열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다시 석탄차를 갈아타고 오면서 도둑떼를 만나기도 했다. 어렵게 청진항에 도착하니 미군들이 빈 집에서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서 우리 가족에게도 나눠 준 적이 있다. 힘겹게 홍남부두에 가서 밤에 불을 밝히고 있는 LST에 오를 수가 있었다. 우리는 배 밑창에서 빵을 먹으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거제도에 닿았다. 거제도 둔덕면에서는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빨갱아”라고 불렀다.

피란 생활 도중 부산에 가자 고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는데, 우선 현 군복을 사서 검은 염료로 옷에 물을 들여 팔았다. 물들인 군복을 햇볕에 말리려고 돌담에 널어놓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옷



1954년 우암동과 감만동 전경으로 해안 일대에 수많은 군수창고들이 보인다. 전쟁이 끝난 뒤 이 곳에 성창목재, 조선목재, 대한중합식품 등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했다.

을 구매해 수입이 제법 좋았다. 이렇게 번 돈으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와서 처음에는 영도에서 살았다. 처음에는 무척 고생했다. 1953년 영도에 도착한 뒤에 다시 우암동으로 왔다. 그 곳에서 사촌오빠를 만났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사촌오빠는 북한 아오지에서 약국을 했었다. 우암동 소마사에도 피란민들이 다 찾고, 개울가에도 집들이 가득 들어서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피란민 사무실 아래에서 집을 지어 살았다.

손자를 낳았는데 시아버지가 ‘부라더미상’을 한 대 사주셨다. 나는 이 미상으로 애들과 조카들의 옷을 만들어 입혔다. 친정어머니 어깨 너머로 재봉을 배웠는데 내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어느새 이웃 사람들이 우리 아이와 조카가 입고 있는 옷이 좋아 보였는지, 너도 나도

옷을 만들어 달라기에 섰바느질 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봉제일이 우암동에서 65년 동안 하게 됐다. 처음 피란을 내려왔을 때는 얼마 있지 않아 전쟁이 끝나면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시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며 서울로 올라가 식당을 하며 돈을 꽤 모았다. 하지만 사기를 당해 돈을 다 날리고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며 고생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가끔 물건을 사러 작기 뱃머리에서 배를 타고 구 시청 뒤에 내려 국제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물건을 만들었다. 당시 배삔은 5환이었다. 오빠는 대원동에서 길가에 천막을 치고 안남미를 파는 쌀가게를 했다. 우암동의 남자들은 여자와 함께 일을 했는데 주로 물건 배달을 많이 했다. 또 부두에 나가서 일하는 이도 많았다. 당시 배에

짐을 옮기는데 나무 막대로 짐을 걸어서 폭도를 하여 옮겼다. 배와 땅 사이에 좁은 널판지같은 나무판을 마치 다리처럼 걸쳐놓고 건너야 했는데 발을 헛디뎠다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었다.

우암동 남자들은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살다가 보니 한푼이라도 술을 많이 마셨다. 그러다 보니 싸움이 자주 일어났다. 이곳저곳 싸움이 일어나 싸움 구경을 하곤 하였다. 다 전쟁 탓이다. 우암동에는 외부 사람이면 도둑이 오지 못했다. 거친 지역이라 그런 것 같았다. 좀도둑질도 성하고, 큰 도로변에는 술집들이 서서히 생겨나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남자들이 날로 늘어나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가정에는 고통이 가중되었다. 조선목재가 있었는데 그곳에 나무 껍질을 벗겨서 팔기도 하고 빨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곡수’라는 조개



1951년 9월 23일 프랑스 주간지 '르파트리오트 일뤼스트레(LE PATRIOTE ILLUSTRE)'에 실린 우암동 피란민 주거지 모습. 현 동향성당 일구 주변으로 추정된다. 사진 제공=부경근대사료연구소

탄이 있었는데 그것을 빨감으로 사용하면 연기가 얼마나 독했는지 우역검역소에 올라가는 길 양쪽 개울가에 심었던 벚꽃나무들이 그때 다 죽었다.

나는 결혼 전에 철도국 전화교환수로 일하며 친정을 먹여 살린 소녀가장이었다. 어머니와 동생들과 헤어져 피란을 왔으니 지난 세월을 눈물로 보냈다. 대한적십자사의 도움으로 영상편지를 제작했는데 그 덕분에 2018년 8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시 남동생의 딸과 셋째 며느리가 만났다. 친정어머니는 90세까지 사시다 작고하셨고, 동생은 2018년 87세로 숨졌다고 한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 고모는 부산 영도에 산단다. 누가 영도다리를 지나가다가 네 고모를 봤다”라고 말씀하셨단다. 아마 고향을 방문한 사람에게 들었던 모양이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나는 멋진 한이

좀 풀렸고 지금은 마음이 편안하다. 북한으로 다시 갈 생각을 안했다라면 장사라도 열심히 해 돈을 벌었들테니 나는 바느질만 열심히 해 입에 겨우 풀칠하고 아이들을 키웠다. 그래도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다. 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효자다. 또 며느리가 우리 가족들과 맞춰줘서 행복하다. 아들 집에서 살다가 정이 든 우암동을 도저히 떠날 수가 없어 다시 왔다. 이곳에서 친구 13명이 친목계를 만들어 친하게 지냈는데 한 명씩 죽어 이제 나보다 어린 한 사람만 요양병원에 있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돈을 벌면 모두 다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 살고 있다. 나는 돈이 없어도 이곳이 좋다. 작기 뱃머리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포근해진다. 이곳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한다.

채록·정리=공기화 부산교대 명예교수

우리지압원 유료광고

• 보건 복지부 인증 (안마 바우처 운영)

• 국가 공인 안마사

• 프로그램
체형교정(목, 허리, 골반)
만성피로 스트레스 관리
건강안마 프로그램 운영

부산시 남구 못골번영로 11
성산빌딩 5층(우리지압원)
예약번호 051-626-7575

신일 이불 솜공장 유료광고

■ 현숨을 들어서 새솜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숙련된 전문가가 직접 이불 껌매 드립니다.
■ **훈수이불**, 침대카바, 애기이불 있습니다.
■ **100% 목화솜**, 명주솜, 배개솜 있습니다.
■ **사찰 방식 주문·제작**

☎ 위치 : 남구 동명로 146번길 47 (용호동)
☎ 051)626-3558 / ☎ 010-3831-2457

미숫가루·선식 찌서 드립니다 유료광고
참쌀고추장 담가드립니다

since 1971

취급품목
참기름, 들기름, 고추, 깨, 참쌀엿 고추장, 간장, 된장, 소금, 쌀, 잡곡, 진도올금, 아마씨, 귀리, 마늘, 생강, 각종 차(보리, 옥수수, 결명자, 등글레 등)

주문·배달 환영 / 4계절 장 담아드립니다

과일나라, 못골건강원 옆
☎ 621-8115 **못골시장 형제상회**

새참빛 영양보호사 교육원 유료광고

수강생 수시모집 (주간반/야간반/자격자반)

강사 수시 모집
2008년 개원 우수한 강사진 최다 합격 보장

새참빛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무료 등급신청 상담

유엔교차로 석포농협 옆 파리바게트 2층
☎ 623-0698 / 010-5600-3763

가정의 달 5월 할인 찬스

순수 국내산 곱벙이로 만든 고단백질 식품

나이스곰(환)

2+1 판매 실시
나이스곰(환) 2Box구입시 1Box증정
1Box 소비자가 : 150,000원 (3gx60포/1일 2회 복용)

연호하신 부모님 건강선물 | 문병 선물용 | 일상에 지친 직장인 | 음주가 많은 성인 남녀

우정 BUG & LIFE 1668-2826
www.nicegoom.com 유료광고

축탁의 : 종의원 / 협약병원 : 성모병원 유료광고

해피실버타운 노인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입소대상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1~4(시설) 등급 판정을 받은 분

의료 서비스
○ 물리(작업)치료
○ 수시외래진료
○ 집중간호
○ 건강관리(월2회, 촉탁의)
○ 건강검진(년1회)
○ 처방약 복용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 치매예방프로그램 (심리치료, 인지, 미술활동)
○ 야간프로그램 (운동치료, 민요활동, 색소폰, 통기타, 생신잔치, 절기행사, 원예활동, 축육활동 등)
○ 지역사회행사

착한 사람, 착한 마음, 착한 서비스로 가족의 자부심을 높여드리겠습니다.
☎ 621-5003~5004 부산시 남구 동명로 101번길 37-7 (용호1동 주민자치센터 뒤쪽) 유료광고

부산안마지압원 유료광고

안마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만성피로, 스트레스, 수면부족은 만병의 근원
목, 어깨, 등, 허리, 팔, 다리의 근육통 신경통 두통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문현동 메가마트 앞 부산안마지압원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 예약자에 한해 평일 23시까지, 공휴일, 휴일에도 이용가능

예약 및 문의
☎ 010-4111-1033
☎ 051-463-5459

찾아오시는 길
부산안마지압원 (문현동 메가마트 앞)

어울림지압원 유료광고

안마바우처 인증 기관원

최고의 수기술로 당신의 균형 잡힌 몸매와 피로 타파, 각종 통증 감소를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 오전 8시~오후 8시 | 주차가능 | 예약필수

전화문의 010-7522-8275
남구 못골로12번길 35, 남구보건소 앞 대동레미안 602호

소파 맞춤 100% 국내 생산 유료광고

침대 29만원
식탁 19만원
소파 38만원
장농 58만원

책상 10만원
2층 사무가구
T.628-1806

名品가구 대연 못골버스 정류소 앞